

# 가와바타 야스나리 소설의 모티브

— 魔界를 중심으로 —

임종석\*

---

## 目次

---

서론

- I. 불계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마계
- II. 『종이학』의 세계의 마계
- III. 『호수』의 세계의 마계
- IV. 『민들레』의 세계의 마계

결론

---

## 서론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는 일본인으로서 맨 처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로 『눈 고장(雪國)』 『산의 소리(山の音)』 『종이학(千羽鶴)』 『호수(みづうみ)』 등의 주옥같은 소설들을 많이 남겼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문학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들은 대부분 일반 독자들이 쉬이 접근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필자는 일본문학을 전공하는 우리 한국 대학생들로부터 가와바타가 과연 노벨 문학상을 받을만한 작가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몇 번인가 있다. 당돌한 질문임에는 틀림없지만 필자로서는 이를 나무랄 생각이 없었다. 문학을 전공한다고는 하지만 그들로서는 아직 가와바타의 소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수박 결만 훑어보고는 맛이 없다고 해서 안 될 것이다. 쪼개어 빨간 속을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야 한다. 가와바타의 소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기만 해서 안 되고 문학적 진수를 맛봐야 한다.

수박을 쪼개기 위해서는 칼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연필을 깎는 것 같이 작은 것이어서는 안 되고, 날의 길이가 적어도 수박의 반지름만큼은 길어야 좋다.

---

\* 충남대학교 교수 일문학

일반 독자들이 가와바타의 소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난해하기 때문인데, 이는 그의 소설이 많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 상징성에는 그만의 독특한 모티브를 통하여 胚胎되어 있는 것이 많다.

가와바타 소설의 상징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수박을 먹기 위해 이를 쪼개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가와바타 소설을 이해하는 것을 수박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 잘 다듬어진 감수성으로 상징성을 이해하는 것이 잘 드는 칼로 수박을 쪼개어 먹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와바타가 즐겨 쓰는 모티브로는 魔界·가타시로(形代)·헛수고(徒勞)·사랑·生·死·輪回轉生·저쪽(向う側)·꿈·無 등 많은데, 이들 중 많은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것으로는 魔界와 가타시로(形代)를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魔界에 대해서만 고찰해보고자 한다.

## I. 불계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마계

나도 잇큐(一休)의 글씨를 두 폭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한 폭은 「佛界 들어가기 쉽고, 魔界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한 줄로 쓴 것입니다. 나는 이 말에 끌리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주 이 말을 휘호합니다.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불계 들어가기 쉽고」에 「마계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덧붙여 말한 그 선(禪)의 잇큐(一休)가 나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궁극은 진·선·미를 목표로 하는 예술가에게도 「마계 들어가기 어렵다」의 바라는 바의, 두려움의 기도(祈禱)에 통하는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고, 혹은 안에 깃든 것은 운명의 필연일 것이겠지요. 「마계」 없이 「불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계」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약하고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본의 나(美しい日本の私)」<sup>1)</sup>의 일절이다. 여기에서는 「불계 들어가기 쉽고, 마계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가와바타가 소장하고 있다는 실제의 書幅에는 「佛界易入 魔界難入」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풀어서 한 말이 「불계 들어가기 쉽고, 마계 들어가기 어렵다」이다. 부처의 세계에는 들어가기 쉽고 마귀의 세계에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천국에는 가기 쉽고 지옥에는 가기 어렵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말이다. 사람들은 보통 천국에는 가기 어렵지만 지옥에는 아무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가와바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 「일본의 아름다운 나—그 서설(日本の美しい私—その序説)」의 다른 이름. 『川端康成全集』(新潮社, 1981·10~1959·5)에는 「아름다운 일본의 나(美しい日本の私)」로 실려 있음. 이 전집은 이하 『全集』이라 표기하고 가와바타 작품으로부터의 모든 인용은 이에 의함.

그렇다면 이 말의 출처는 어디인가. 가와바타는 잇큐 선사(一休禪師)의 서쪽에서 이 말을 보았다 했는데, 더 오래된 문헌 가운데 보인 것으로는 중국의 『羅湖野錄』과 『大慧武庫』이라는 서적이다. 잇큐 선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가 이 중 하나, 아니면 둘 다에서 보고 揮毫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와바타가 보고 자기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로 즐겨 썼을 것이다.

「仏界易入 魔界難入」은 본래 불교용어로, 불계에 집착하지 않고 마계에 들어가 마음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참다운 悟境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sup>2)</sup> 그러나 가와바타는 이를 自己流로 해석하여 자신의 소설에 모티브로 쓴 것이다. 「『마계』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는데, 「마음이 약하고는 이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강하고도 어딘지 독한 데가 있는 성품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마계라고 추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앞에서 「아름다운 일본의 나」로부터 인용한 문장의 바로 앞에, 「잇큐는 생선을 먹고,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禪의 계율, 금제를 초월하여,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해방하는 일에 의해 그 무렵의 종교의 形骸에 반역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가와바타는 이와 같은 잇큐의 행동이 마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지 않나 한다.

불교의 구도자가 고기와 술을 먹고 여자와 정을 나누는 것은 자기들의 종교의 규범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마계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어쩌다 실수로 교리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를 완전히 무시할 때 마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佛者の 마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그렇다면 일반인의 그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덕과 윤리 등의 사회 제반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두뇌 활동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간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패륜아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와바타가 생각하는 마계란 들어가기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가와바타의 소설에 처음으로 마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것은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1950년 12월 20일부터 다음해인 1951년 3월 31일까지 연재된 『마이히메(舞姫)』가 아닌가 한다.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의 일곱 번째 장은 그 표제도 「불계와 마계(仏界と魔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료하지 않다.

시나코(品子)는 자기 아버지 야기(矢木)의 방의 벽에 걸린 잇큐(一休)의 글씨 <仏界易入魔界難入>을 보고 이것을 「불계 들어가기 쉽고, 마계 들어가기 어렵다」로 읽어야 할 것인지, 「불계는 들어가기 쉽고, 마계는 들어가기 어렵다」로 읽어야 할지 생각해본다. 그

2) 효도 마사노스케(兵藤正之助)『川端康成論』(春秋社、1988·4、p.375)

리고 「불계에는 들어가기 쉽고 마계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반대인 것 같다」고도 생각한다. 나중에는 아버지 야기에게 그 의미를 물어본다.

「아버님, 잇큐의 불계, 마계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 말이냐……? 재미있는 말이구나.」

라며 야기는 조용히 벽의 글씨는 보았다.

「아버님 안 계실 때 저 혼자서 바라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지 않아졌어요.」

「흐음……. 어째서?」

「불계 들어가기 쉽고, 마계 들어가기 어렵다고 읽나요? 마계라면 인간세계를 말하나요……?」

「인간세계……? 마계가 말이지?」

야기는 의외라는 듯 반문했지만,

「그렇지도 모르지. 그렇지도 몰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째서 마계인가요?」

「인간답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디 있지? 마물뿐일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시며 아버님께서 이 글씨를 보고 계시나요?」

「그러기야……. 여기에 쓰인 마계는 역시 마계겠지. 무서운 세계야. 불계보다도 들어가기 어렵다니 말야.」

「아버님은, 들어가고 싶으시나요?」

『마이히메』의 세계에 마계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장면이다. 시나코의 아버지 야기는 세상에 인간은 없고 마물뿐이라는 것인데, 인간다운 인간이 적다는 의미일 것이다. 야기는 어딘지 비꼬인 데가 있는 듯한 성격의 사람이다. 마계에 들어가고 싶으나 딸의 질문에 「어머니는 불계에 있다고 시나코가 믿고 있다면 나는 마계라 해도 상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계가 어떤 곳이며 왜 들어가기 어려운지 야기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야기는 이어서 말한다.

불계 들어가기 쉽고, 마계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은 善人 成仏한다, 하물며 惡人이라 라고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틀린 것 같다. 잇큐의 말은 센티멘털리즘을 배제한 거야. 어머니와 시나코 같은 사람의 센티멘털리즘을 말야……. 일본 불교의 감상이나 서정을 말야……. 치열한 싸움에 대한 말일지도 모르지. (후략)

잇큐의 것이라는, 착한 사람은 성불하고 악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말의 진의는 알 수 없으나, 야기의 그러나 틀린 것 같다는 말은 착한 사람은 성불하지만 악한 사람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야기가 자기의 아내와 딸의 감상주의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은 위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고찰해본 바와 같이 『마이히메』의 세계를 통해서는 왜 불계에는 들어가기 쉽고 마계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이히메』의 집필기간은, 1949년 5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사이에 여러 잡지에 발표된 『중이학(千羽鶴)』과 1949년 9월부터 1954년 4월까지 사이에 역시 여러 잡지에 발표된 『산의 소리(山の音)』의 집필기간과 겹쳐지고 있는데, 이 세 작품 모두에 마계에 대한 의식은 다소라고는 해도 다 나타나 있다.

집필기간이 겹쳐진 이 세 작품 가운데 마계에 대한 의식이 가장 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산의 소리(山の音)』이다. 옹다고는 하지만 이 작품세계를 통해서는 마계에 들어가는 것이 왜 불계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가를 推察할 수 있다.

『산의 소리』의 주인공은 61세의 오가타 신고(尾形信吾)와 그의 며느리 기쿠코(菊子)이다. 신고는 소년시절에 동경했던 미모의 妻兄의 모습을 기쿠코에게서 본다. 의식의 위에서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좋은 시아버지이지만 의식의 밑에서는 남자로서 기쿠코를 사랑한다. 의식 밑에서의 사랑은 신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자주 꾸는 꿈을 통하여 의식 밑에서 기쿠코를 남자로서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경악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신고가 이러한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데에 있다. 「꿈에서 기쿠코를 사랑한다 해도 상관없지 않은가. 꿈에서까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꺼린다는 말인가. 생시라 할지라도 남몰래 기쿠코를 사랑한다 해도 상관없지 않은가」라고 그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신고뿐 아니라 기쿠코도 이와 같은 시아버지의 사랑에 「만약」 남편 슈이치와 「헤어진다면 아버님을 어떻게든 모시겠어요」라고 화답한다. 그것은 너의 불행이라는 신고의 말에 그녀는 「자진해서 하는 일에 불행은 없어요」라고 열정의 불을 뿜는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남녀로서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마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럴리스트 신고가 마계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앞에서의 자기합리화는 일시적으로 스쳐간 생각이었을 뿐,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자기에 대하여, 「어떠한 간음보다도 이것은 추악하다. 老醜라는 것일까」라고 평상시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되돌아온다.

결국 『산의 소리』의 세계에는, 마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하가 하는 기준만을 제시한 채, 실제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고 막을 내린다.

## II. 『종이학』의 세계의 마계

『종이학(千羽鶴)』의 세계에는 마계에 대한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종이학(千羽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이히메(舞姫)』 및 『산의 소리(山の音)』와 그 집필 기간이 겹쳐지는 소설이다. 그러면서 마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세계에는 마계에 대한 것이 冒頭에서부터 등장한다. 그 일절을 보면 이렇하다.

기쿠지(菊治)가 여덟 살인가 아홉 살 때쯤이었을까. 아버지를 따라 치카코(ちか子)네 집에 가자, 치카코는 거실에서 가슴을 드러내놓고 반점의 털을 작은 가위로 자르고 있었다. 반점은 왼쪽 유방에서 반쯤 걸쳐서 명치 쪽으로 퍼져 있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였다. 그 검붉은 반점에 털이 나 있는 듯, 치카코는 그 털을 가위로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남 주인공 기쿠지의 너리에 떠오른 적이 있는 치카코의 가슴의 반점에 대한 표현이다. 치카코는 기쿠지의 아버지의 한때 情婦였던 여자이다. 『종이학』의 세계에는 마계에 대한 것이 이 치카코의 반점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반점을 하세가와 이즈미(長谷川泉)는 「마성의 상징」<sup>3)</sup>으로 봤고, 요시무라 데지(吉村貞司)는 「그녀의 恥部이며 전존재의 심벌」<sup>4)</sup>로 봤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과 견해를 달리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치카코의 반점은 마성의 근원인 것이다. 마성은 이 반점으로부터 나와 치카코에게 지별 입히고 또 치카코에서 나와 작품세계 전면을 감돌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별 입힌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반점에 난 털이다. 손바닥만큼 큰 검붉은 반점에 난 털은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충분하다. 이 털은 마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반점에서 마성인 털이 나 치카코에게 지별 입힌 것이다. 치카코는 마성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털이 자라면 잘라내었으나, 반점을 도려내지 않는 한 마성의 사람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반점은 남성의 상징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치카코가 「남자의 수염처럼 생긴, 「반점의 털을 작은 가위로」 자르고 있었다는 표현은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하필이면 털이 「남자의 수염처럼 생」겼는가. 이것만으로도 털이 남성의 상징이라는 것을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쿠지에게 이 반점을 보이고 나서 2,3년

3) 하세가와 이즈미(長谷川泉) 『가와바타 문학의 기구(川端文學の機構)』(教育出版センター、1984・5、p.236)

4) 요시무라 데지(吉村貞司) 『『종이학』론(『千羽鶴』論)』(川端文學研究會著『川端康成の人間と藝術』<1974・3、p.181> 所收)

후에는, 치카코는 왜인지 남성화되어 이제는 이미 완전히 중성이 되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털이 남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털은 마성의 상징으로서, 또 남성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이중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작품세계에서 한 털의 남성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은 크기는 하나 단순하여 이상의 설명으로 그 규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작품세계 전면을 통해 끊임이 없는 것은 역시 마성으로서의 역할이다.

치카코가 마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독을 품고」 있는 일이나 「독을 뿌리」는 일, 「독기를 뿜어내」는 일, 그리고 「독을 토하」는 일 등에 나타나 있다. 작품세계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은 이 독이나 독기에 오염되어 마성의 인간이 된 것이다.

기쿠지가 치카코의 다회에 갔을 때 그는 그 다실의 「독기를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도 했는가 하면, 치카코의 「그 커다란 털이 난 젖을 먹은 아기는 무엇인가 악마의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겁을 먹기도 했다. 그는 치카코의 다실에 감돌고 있는 독기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나 오타 산(さん)이나 아버지의 망령」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중이학』의 세계에 감돌고 있는 독기는 자신의 반점에서 나온 마성에 의해 마계의 사람이 된 치카코가 품어낸 것으로 기쿠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마성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치카코가 자기의 마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타 부인만을 「마성의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치카코는 오타 부인을 가리켜 기쿠지에게 말하기를 「마성의 여자를 멀리하고 좋은 인연이 맺어지게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댁에서 마성을 쫓아내지 않으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그런가 하면 「후미코 산의 결혼으로 부인의 마성도 이 집에서 쫓겨날 거요」라는 말도 한다. 치카코 그녀는 오타 부인의 마성이 자기가 내뿜은 독기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기쿠지는 오타 부인의 마성이 치카코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기에 부인에게 「당신도 그 반점에 지별 입은 거요」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마성에 지별 입을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인데, 치카코의 반점을 직접 봤으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는 「치카코에게 강요당하는 것 같은 독기」가 자신에게 전해 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가 오타 부인에게 「내 뿜은 독」을 느끼기도 한다.

치카코는 자신의 마성을 의식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마성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유감 없이 해내고 있다. 그녀는 기쿠지의 「아버지의 뒤를 밟아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끔 미망인의 집에 훈계하러」 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깊은 질투」를, 「불을 뿜기라도 하」 듯 뿜어대기도 한다. 결국은 오타 부인에게 전화로 기쿠지와 유키코(雪子)의 결

혼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해」 부인이 자살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다. 기쿠지가 치카코에게 오타 부인을 「당신이 죽인 것과 같」다고 한 것은 이에 연유한 것이다.

이마무라 준코(今村潤子)는, 치카코가 오타 「부인과 기쿠지의 관계를 여자의 직감으로 알」았다<sup>5)</sup>고 말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그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안 것은 여자의 직감에 의해서라고 하기보다 그녀의 魔性에 의한 魔力으로 알았다고 본다는 말이다. 그녀는 「오타 부인이 자살이었다」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이 또한 여자의 직감이 아니라 마성의 마력으로 안 것이다.

치카코의 이와 같은 마력을 가장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후미코이다. 그녀는 치카코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에 치카코를 보고는 무섭다며 몸서리를 치는데, 마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녀의 순수성 때문일 것이다.

마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인간으로서 도덕과 윤리 등의 사회 제반의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술한대로이다. 그런데 『종이학』에 있어서의 최초의 悖德·悖倫의 사건은 기쿠지와 오타 부인과의 사이에 일어난다.

기쿠지는 자기의 亡父의 여자였던 오타 부인과 성적으로 맺어진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친상간이라 할 수 있는 패륜이다. 그런데도 情交에서 일으킨 오타 부인의 여자로서의 물결은 완벽한 것이었다. 「그 물결에 살결을 쉬면서 기쿠지는 정복자가 즐며 노예에게 발을 씻기고 있는 것 같은 만족까지 느낀다. 경험 많은 부인의 여자로서의 애정 어린 물결은 「경험이 열은」 기쿠지와 정교까지도 완벽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의 여자였던 여자와 자기의 남자였던 사람의 아들 사이의 근친상간적 정교가 이토록 완벽한 것이 된다는 것은 마계에 사는 마성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쿠지와 오타 부인의 근친상간적인 이 정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추악하여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악취로 코를 들지 못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독자들은 대개 이 두 사람의 행위에서 추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움을 느낀다. 오타 부인이 기쿠지에게서 그의 아버지인 옛 情夫의 모습을 보았음으로 기쿠지 또한 스스로를 자기 아버지로 착각했음이며, 또 이를 작자가 그 뛰어난 문학적 감수성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가와바타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의 하나인 가타시로(形代)를 적절하게 도입한 결과이다.

기쿠지의 근친상간적 정교는 오타 부인과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다. 부인의 딸 후미코(文子)와도 이다. 후미코는 자기의 어머니와 모녀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를 존중하고 이성적인 점잖은 아가씨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딸 쪽이 어른다워 어머니처럼 보이기도 한다. 기쿠지를 만나려 하는 어머니를 말리는 일도 후미코가 한다.

이처럼 이성적이고도 윤리적인 후미코가 어머니의 사후 어찌하여 그 어머니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일까. 어머니와 기쿠지의 정교 사실을 알고 있는 그녀가 어찌하여 한번의 「저

5) 이마무라 준코(今村潤子) 「『종이학』론(『千羽鶴』論)」(羽鳥徹哉『川端康成一日本の美學—<有精堂, 1990·5, p.166> 所收)



항]도 없이 이성이고 윤리고 모두 정교의 정염 속에 던져버린 것일까. 어머니와 기쿠지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기쿠지의 아버지의 여자이므로 기쿠지는 자기에게 있어 오빠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모럴리스트인 그녀를 무엇이 이 엄청난 패륜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후미코는 자기 어머니의 가타시로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의 가타시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인식하고 있었다 해도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기쿠지의 두 사람 사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후 기쿠지에게 「어머니가 세상을 뜬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점점 아름답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여 자신의 思考에 전환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완전한 가타시로가 되어 기쿠지의 품에 안겼던 것이다. 기쿠지도 그녀에게서 그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을 정교의 정념으로 태워버리고 만 것이다.

오타부인은 기쿠지의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죽은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안겼으며, 또 기쿠지에게서 그의 아버지 즉 저 세상 사람이 된 옛 정부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안겼다. 또 기쿠지는 기쿠지대로 자기 아버지의 가타시로가 되어 부인을 안았으며, 후미코에게서 부인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안은 것이다. 요컨대 『종이학』의 세계에 있어서의 마계는 가타시로라고 하는 모티브를 매개로 하여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추악한 패륜을 아름답음으로까지 승화시킨 결과의 산물이다.

### Ⅲ. 『호수』의 세계의 마계

『호수(みづうみ)』는 주인공 긴페(銀平)의 美女尾行을 主要事件으로 하는 소설이다. 남 주인공 긴페는 34세의 女高 국어교사로 미모의 여인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행을 하고 마는 습성이 있다.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닮지 못하고 아버지의 못생김을 이어받은 긴페의 추함은 그의 못생긴 발이 대표한다. 그런데 긴페 자신은 미녀미행의 원인을 이 못생긴 발에서 찾고 있다. 그는, 「여자의 뒤를 쫓는 것도 발이니까 역시 이 못생김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추악한 발이 미녀를 쫓는 것은 하늘의 섭리인 것일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긴페의 못생긴 발에 대해서는 諸說이 있다. Valdo H.Viglielmo는 「주관과 정신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말한 뒤 「긴페의 내면의 추함<sup>6)</sup>을 상징한다고도 주장하는가 하면, 이와 타 미츠코(岩田光子)는 「『호수』에는 <발>의 묘사가 빈출하는데, 가와바타의 다른 작품에

6) Valdo H.Viglielmo 「『みづうみ』論—なんとみにくい足であることか—」(武田勝彦・高橋新太編『川端康成一現代の美意識—』<1978・5、明治書院、p.126、131> 所收)

산견되고 있는 <발>의 묘사는 관능 또는 성 그 자체의 상징으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고 서술한 뒤, 『호수』 역시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sup>7)</sup> 프로이트의 관점으로 못생긴 긴페의 발은 그의 성적인 열등감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견해와軌를 같이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페의 못생긴 발을 성적인 열등감만으로 이해하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Vitaliy Tolstoy의 말처럼 긴페는 「색욕에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의식에 색욕적인 환상」<sup>8)</sup>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팔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긴페의 못생긴 발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필자는 대체적으로 Valdo H. Viglielmo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내면의 추함」만으로 그의 발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의 발은 그의 내면의 추함과 동시에 외모의 추함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페의 외사촌 누이 야요이는 그를 가리켜 「저 봐, 원숭이의 얼굴이야」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용모의 추함을 증명하고 있다. 못생긴 남자가 아름다운 아가씨들에게 정신이 팔려 뒤를 밟는 것이 『호수』의 세계라는 말이다.

그런데 무엇이 醜男으로 하여금 美女를 미행하게 한 것일까. 여기에 『호수』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있는 것이다. 이 열쇠는 물론 작품세계에 숨겨져 있다. 긴페의 미녀미행은 자기의 제자 히사코의 뒤를 밟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작품세계는, 「긴페가 前後不覺의 酩酊이나 夢遊病者처럼 히사코의 뒤를 쫓은 것은 히사코의 魔力에 유혹되었기 때문에 히사코는 이미 마력을 긴페에게 내뿜었던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히사코는 긴페가 뒤를 쫓게 하는 것 같은 마력을 감돌게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 긴페의 히사코 미행의 원인이 그녀의 마력에 있다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규정짓고 있다. 긴페는 마력을 지닌 「이상한 소녀에게 感電되어 있었던 것이다」.

魔力은 魔性的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사코는 마성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상식을 초월한 행동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한번은 어머니의 돈 「2만 7천엔」을 훔쳐다 긴페에게 주었다. 거금이라서 긴페는 평소와는 달리 「필요 없어. 발각될 테니 도로 가져다 놓아라」라고 한다. 이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발각 되면 집에 불을 질러도 좋」다는 것이었다.

긴페가 접근해오자 「히사코의 여자는 일순 감전되어 전율이라도 하는 것처럼 눈을 떴다. 히사코가 몸을 마졌을 때 많은 소녀는 이런 것일까 하고 긴페까지도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녀는 상식의 선을 이미 넘고 있었다. 청순가련해야 할 여고생이 34세의 남자 교사에게 쉽게 몸을 맡긴 것도 그렇고, 몸을 맡겼을 때의 대담함에는 긴페까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긴페가 「히사코의 가슴을 더듬으며 눈을 감자, 그리고 「긴페의 한 손의

7) 岩田光子『川端文學の諸相—近代の妖艶—(1958・5、櫻楓社、p.254)

8) Vitaliy Tolstoy 「『みづうみ』論」(『世界の中の川端文學』<1999・11、おうふう、p.> 所收)

손가락으로 히사코의 목을 붙잡자, 그녀는 「선생님, 목을 졸라도 좋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뜨겁게 속삭일 정도로 사랑의 포로, 아니 마성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히사코의 마성은 긴폐를 자기의 방으로까지 끌어들이는 대담성을 보인다. 「선생님, 제 뒤를 쫓아주세요」라고 말하여 긴폐로 하여금 자기를 미행케 한 뒤 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저, 선생님과 결혼할 수 없잖아요? 하루라도 좋으니 제 방에서 같이 있고 싶어요」였다. 긴폐는 이러한 「히사코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고, 히사코는 이 입맞춤을 「오래 계속할 것을 바라고 몸의 무게를 긴폐의 팔에 맡겨버렸」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입술도 닦지 않고」 나가, 「긴폐를 위해 샌드위치 같은 것을 만들어, 「은쟁반으로 커피세트까지」 곁들여서 가지고 올 정도로 그녀의 마성은 활기를 띠었다.

긴폐와 히사코의 마성의 행진은 이것을 정점으로 막을 내린다. 방에 있는 두 사람이 히사코의 부모에게 들킨 것이다. 그 뒤 히사코가 집에 감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녀의 졸업식 날 단 한번 만난다. 그러나 히사코는 이미 옛날의 그녀가 아니었다. 긴폐에게 히사코는, 「선생님, 저는 상처받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직 선생님이 그리워지면 가겠어요」라고 결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의 표현에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魔性에 의한 魔氣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성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긴폐와의 뜨거웠던 애정행각이 마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깊은 자기성찰은 자신에게서 이 마성을 몰아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긴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히사코는 알았던 것이다.

긴폐가 두 번째로 미행한 여자는 마치에(町枝)라고 하는 미소녀이나, 그녀는 마성의 여자가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세 번째로 뒤를 밟은 미야코(宮子)에 대해 고찰하자면 이러하다.

미야코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스물다섯 살의 여자이다. 일본의 패전까지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자랐으나 전쟁은 가정을 몰락시켰고 첫사랑까지도 앗아갔다. 그리하여 지금은 「여자와 같이 잘 나이도」 아닌 일흔 살의 노인의 첩으로까지 전락되어 있다.

이러한 미야코를 긴폐이는 뒤쫓은 것이다. 그러나 긴폐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리한 것이 아니라 미야코 또한 긴폐로 하여금 뒤를 쫓게 한 것이다. 그녀는 사내들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쫓게 하는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는 여자였다. 긴폐에게 미행당하기 한 주일 쯤 전에도 긴자(銀座)에서 사내에게 뒤를 밟혔고, 남동생의 입학축하로 우에노(上野) 동물원에 밤 벚꽃 구경을 갔을 때에도 그리했던 것이다.

미야코가 사내들에게 뒤를 밟힌 것은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인 것이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미행에 대한 설명으로 불충분하다. 그녀는 미인이라고 하는 이유 말고도 사내들이

뒤를 밟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마성이었다. 「남자가 따라온 것은 미모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미야코 자신도 알고 있었고, 「아리타 노인의 말처럼 마성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가리켜 아리타 노인은 「惡魔의 놀이」라 하는가 하면, 미야코를 가리켜 「魔性의 여자」라고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魔物」이 미야코 안에 살고 있다고도 한다. 노인의 말에 미야코는, 「인간의 안에 남과는 다른 魔族이라는 것이 있고, 그 외의 魔界라고나 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마족이란 魔의 집단을 말하고, 마계란 그들이 사는 세계를 말한다. 환언하면 미야코의 말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性狀이 魔性인 것이다.

인간 누구에게나 마성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마성을 전혀 지니지 않은 인간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모두를 마성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를 보고도 음란한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남자를 가리켜 음란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남달리 음란한 생각이나 행동을 많이 했을 때 음란한 사람이라 하듯, 마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마성을 지녀야 하는데, 남다른 마성이란 전술한대로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보면 미야코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마성의 사람은 아니다. 미야코를 첩으로 둔 일흔 살의 아리타 노인은 젊디젊은 그녀에게 모성을 느낀다. 노인은 미야코의 「기슴에 얼굴을 대고,」 그 「따스한 유방」에 모성을 渴求한다. 「그러한 미야코네 집에서의 시간을 항상 바쁘기만 한 노인은 「『노예해방』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정작 미야코는 자신에게 있어서의 이 시간은 『노예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노인이 만족스러워하는 이 시간 그녀는 「노인의 흰머리 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녀네 집 식모 다쓰의 말을 빌리면 미야코는 「젊은 피를 어이없이 늙은이에게 빨」리며 「몸의 젊음」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미야코의 젊은 아름다움은 소모품」이었던 것이다. 노인과의 생활이 미야코로서는 「굴욕」이었고, 「분노」였던 것이다. 「自棄心」으로부터 약간의 「自尊心」을 지키는 일에도 힘이 겨운 그녀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야코에게 있어 사내들에게 뒤를 밟히는 일이야말로 유일하게 긍지를 느끼게 했다. 이러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마성을 은밀하게 길러가고 있었다. 자기의 여자를 사내들에게 내던져버리고 싶다고 하는 바람을 무의식 속에 길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야코는 긴폐가 뒤를 밟아 따라왔을 때 그에게 핸드백을 내던졌는데, 여기에서의 핸드백은 쓰루타 긴야(鶴田欣也)의 견해처럼 「女性器의 심벌」인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신의 여자를 긴폐에게 던졌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핸드백 속에 든 「20만 엔은 미야코에게 있어서 젊은 몸을 半死白頭의 노인에게 맡기고 꽃피는 젊은 시간을 소모하여, 「청춘의 代償으로」 얻은, 「미야코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이다.

핸드백은 미야코에게 있어 자기의 여자를 상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 길거리에 지천으로 돌아다니는 사내들 가운데의 하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고 하는 일은 마성의 여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 IV. 『민들레』의 세계의 마계

소설 『민들레』는 미완의 작품으로 가와바타 가오리(川端香男里)에 의하면 대장편의 「布石」<sup>9)</sup>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작품론은 불가능하다 해야 할 것이다. 布陣도 덜 끝난 상태에서 전쟁의 승리나 패배를 말하는 것과는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작자 가와바타가 자신의 소설에 모티브로 즐겨 쓰는 모티브 <魔界>가 작품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완성되었을 경우의 작품세계를 그 일부일지라도 예견해 보기 위해서이다.

『민들레』의 세계에는 「佛界易入 魔界難入」이라는 글자가 직접 등장한다. 자신이 장기 입원해 있는 이쿠타(生田) 「병원의 터주대감과도 같은 니시아마(西山) 노인」이 조코지(常光寺) 「본당의 다타미에 종이를 펼쳐놓고 큰 글자」로 쓴 것이 이 「佛界易入 魔界難入」이다.

「니시아마 노인은 인생의 어느 때에 마계에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마계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그 통한」으로 미친 사람이다. 노인이 쓴 글씨에는 「힘」이 있고 「俗氣」 「匠氣」가 없다. 「뒤숭숭한 글씨가 아니고, 미치광이 같은 글씨도 아니지만 잘 보고 있노라면 광기 혹은 마기가 깃들어 있다.

「광기」란 미치광이의 증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인이 쓴 글씨는 미치광이 같은 글씨가 아니지만 광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 것이다. 작자 가와바타는 「미치광이 같」다고 하는 것과 「광기」를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쓴 것이다. 미치광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인보다 훨씬 큰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이 힘의 氣運을 작자는 광기로 본 것일 게다. 「그 글씨는 힘이 있다」고 한 표현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니시아마 노인이 기거하는 이쿠타 병원은 이쿠타초(生田町)에 있고, 이 이쿠타초는 「민들레꽃이 핀 봄과 같은 조그마한 도시이다」. 「삼만 오천 정도의 인구 가운데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394명」이나 있는 長壽의 고장으로 무척이나 밝고 맑고 건강한 이미지이다.

9) 『川端康成全集 第十八卷』(新潮社、1980・3、p.591)의 『たんぽぽ』의 「解題」 중 가와바타 가오리(川端香男里)의 말임.

「거리 그 자체가 양지 같은」 곳이 이 이쿠타초이다. 그러나 「이 이쿠타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미치광이 병원이다」.

작품세계의 모두에서 본 이쿠타초와 이쿠타 병원인데, 양자를 의도적으로 대비시켜놓은 작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밝고 맑고 건강한 이미지의 이쿠타초와 미치광이 병원인 이쿠타 병원의 대비를 통하여 작자 가와바타는 전자를 「불계」로, 후자를 「마계」로 그리려 했던 것이다. 「니시아마 노인은 미치광이 병원을 마계 같은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마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피난처, 휴식처라고 할 정도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 보이지만, 이는 반어적인 효과를 노린 作意에 의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작품세계에 니시아마 노인은 「병원의 터줏대감과도 같은」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에서의 터줏대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병원에 입원하여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면에서가 되었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환자들 가운데 중심적 인물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어떠한 면에서가 되었건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두드러진 모습이나 성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 두드러진 것 중에는 「魔性」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인의 「魔性」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노인의 그것이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며, 또 그것이 人體缺視症이라는 奇病에 걸린 아가씨 이나코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니시아마 노인의 매일의 즐거움은 저녁 7시 라디오 뉴스 전의 일기예보를 듣는 것」이다. 그렇다고 날씨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일기예보 그 자체는 어떠한 것도 좋고, 그것을 맡은 젊은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하다.

그 목소리는 알맞은 달콤함을 띠어 정말이지 상냥스럽다. 미치광이 병원 밖의 세계로부터 사랑스러운 한 아가씨가 자기 혼자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는 것 같이 노인은 느낀다. 애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이다. 노인을 아가씨가 위로하고 달래 준다. 아름다운 청춘의 메아리이다. 그 아가씨의 이름도 모르고 용모도 보지 않고, 어쩌면 자기가 죽은 뒤에도 그 아가씨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일기예보 방송을 계속할지도 모르지만, 폐잔한 자기에게 사랑의 목소리로 매일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은 이 아가씨라고 니시아마 노인은 생각하고 있다.

니시아마 노인으로부터 연상되는 인물이 있다. 『호수(みづうみ)』의 모모이 긴페이(桃井銀平)이다. 그는 거리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밟게 된다. 뒤

를 밝히는 여자의 마성이 손짓하고, 이에 자신이 지닌 마성이 호응함으로써 그의 미녀 미행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재언을 요치 않는 마계의 주민(魔界の住人)이었던 것이다.

노인으로부터 연상되는 또 한 사람은 『잠자는 미녀(眠れる美女)』의 세계에 등장하여 쏠裸의 미녀의 방에서 협심증으로 급사한 후쿠라(福良) 노인이다. 노인의 죽음에 대하여 「행복한 돈사(頓死)를 이루었다」고도 「악마 같은 장난」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노인도 마계의 주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민들레』의 니시아마 노인은 『호수』의 긴페나 『잠자는 미녀』의 후쿠라 노인이 女体の 아름다움을 쫓아 마계로 빠져드는 것과는 달리 목소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다. 그러므로 니시아마 노인의 마계는 긴페나 후쿠라 노인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르다 해도 그 다르다는 것 만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라디오의 전파를 타고 전해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마계까지 이를 수 있겠냐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마계로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뜨거운 피가 흐르며 살아 숨쉬고 있는 육체가 직접 전해주는 聲帶에 의한 音聲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작자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자키 이나코(木崎稻子)를 니시아마 노인 앞에 등장시킨 것이다.

작품세계는, 「만약 기자키 이나코가 노인에게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이나코는 목소리가 예쁘니까 노인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체결시증의 이나코는 니시아마 노인의 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붓과 글씨만이 보인다는 것을 노인이 안다면, 어쩌면 니시아마 노인은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마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欣喜勇躍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는 것이다. 「젊은 아가씨 이나코에 의해 어이없이 마계로 인도되어 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예쁜 일기예보의 아나운서와 목소리가 예쁜 기자키 이나코를 대비시켜 등장시킨 것은 작자의 의도적인 구상의 결과인 것이다. 목소리가 예쁜 이나코는 노인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고, 노인은 이나코에게 이끌리어 마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가설은 가설이상의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가와바타 가오리의 말에 의하면 『민들레』에는 작자 가와바타의 창작메모가 있는데, 거기에 「기자키 이나코 목소리 예쁨(木崎稻子 聲きれい)」<sup>10)</sup>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니 작자가 이나코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중요한 소재로 하여 작품세계를 전개해나가려 했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해도 좋을 것이다.

니시아마 노인이 꿈꾸던 마계는 적극적이며 무엇인가 힘이 넘치는 그런 것이었으나 이제 늙어 「어떠한 마계에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다만 「佛界易入 魔界難入」을 휘호하는 것으로 마계에 들어가지 못한 「통한」을 삼키고 있다. 이제 노인이 마계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정신이 노쇠 됨에 따라, 「마계도 노쇠」 된 그러한 것이 될

10) 『川端康成全集 第十八卷』(新潮社, 1980·3, p.593)의 『たんぼ』의 「解題」 중 가와바타 가오리(川端香男里)의 말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쇠된 마계란 어떠한 것일까. 「인체결시증의 이나코는 니시아마 노인의 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붓이 움직여 (佛界易入 魔界難入)이라고 글씨를 쓰는 것이 보인다」라는 표현은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표현은 구약성서의 「다니엘」 5장을 연상시킨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일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粉壁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 사건이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다.

손가락이 쓴 글자는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이었는데, 「그 뜻을 해석」하여 보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테켈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테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다. 작자 가와바타는 성서를 많이 읽은 사람이니 이 기록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손가락이 글씨를 쓴다고 하는 외형적인 것만 작품에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까지 빌려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내용까지 빌려 썼다면 벨사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노인과 이나코 두 사람 중 하나는, 아니면 둘 다 죽게 될 것이다. 노인이 이나코에게 이끌리어 마계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말이다.

이나코의 애인 히사노(久野)는 자신의 「直觀이나 第六感」을 믿을 뿐 아니라 이에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노인의 「눈은 극악한 범죄의 연못」임을 간파하는 가운데 노인에게 어떠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나코와 노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直觀이나 第六感」으로 예감했기 때문이다.

히사노의 예감은 애인 이나코와 니시아마 노인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마계로 빠져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계는, 니시아마 노인이 『호수』의 모모이 긴페나 『잠자는 미녀』의 후쿠라 노인처럼 女體의 아름다움을 쫓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나코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되어 그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술한 대로이다. 이나코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노인을 매료시키게 될 것이고, 이것이 두 사람을 마계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해 육체적 향연에 빠지게 하는 事端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 결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은 상징적 표현 때문에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징적 표현의 많은 부분은 그만의 독특한 모티브를 통하여 쓰이고 있다. 그가 즐겨 쓰는 모티브 중에 「仏界易入 魔界難入」에 의한 「魔界」라는 것이 있다. 「仏界易入 魔界難入」이라는 말이야말로 난해하다. 그러나 불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평범한 사람이고, 마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모티브로서의 마계가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는 소설 가운데 『종이학』이 있다. 『종이학』의 세계에 있어서의 마계는 치카코(ちか子)의 가슴에 있는 손바닥 크기의 반점에서 나온 魔氣에 의해 이루어진다. 치카코 가슴의 반점에서 나온 마기는 작품세계 전면에 감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성의 사람으로 만든다.

기쿠지(菊治)는 자기의 亡父의 여자였던 오타 부인과 육체의 정을 통하고 만다. 그리고 부인이 세상을 뜬 뒤에는 그녀의 딸 후미코(文子)와도 通情한다. 어느 것도 구토를 자 아내게 하는 근친상간적 情交이다. 그런데도 이 추한 남녀관계는 독자들에게 혐오감 아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또 하나의 모티브 가타시로(形代)가 有效適切하게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오타 부인은 기쿠지에게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안겼으며, 기쿠지 또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부인을 안았던 것이다. 그리고 기쿠지는 후미코에게서 그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안았으며, 후미코 또한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 그에게 안겼던 것이다.

결국 『종이학』의 세계에 있어서의 마계는 가타시로라고 하는 모티브를 매개로 하여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추악한 패륜을 아름다움으로까지 승화시킨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모티브로서의 마계가 쓰인 가와바타의 소설을 논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작품으로 『호수(みづうみ)』가 있다. 주인공 긴페(銀平)는 미모의 여인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행을 하고 마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그의 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녀의 뒤를 밟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발인데 못생겼다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의 내면의 추함과 동시에 외모의 추함도 상징하고 있다.

여자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34세의 긴페가 처음 미행한 사람은 재학 중인 제자 히사코였다. 히사코의 마성이 사내로 하여금 뒤를 밟게 했고 긴페의 마성이 이에 호응하여 미행은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순수하고 순결해야 할 여고생 히사코는 마기에 오염되어 마성의 사람으로 변하자 상식을 초월하는 담대함으로 妖婦가 되어 역시 마성의 사람 긴페조차도 놀라도록 악마적 언행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성적 향연을 주도해간다.

긴페가 두 번째로 미행한 마성의 여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스물다섯 살의 미야코(宮子)이다. 지금은 일흔 살로 半死白頭の 아리타 노인의 첩이 되어 꽃피는 짧은 시간의 젊은 몸을 소모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노인과의 생활이 미야코로서는 「굴

욕」이었고 「분노」였으며, 「自棄心」으로부터 약간의 「自尊心」을 지키는 일에도 힘에 겨워 했다. 이와 같은 미야코에게 있어 사내들에게 뒤를 밟히는 일이야말로 유일하게 긍지를 느끼게 했다. 그런데 사내들이 미야코를 미행한 것은 그녀의 마성이 유혹했기 때문이다. 긴폐도 그녀의 마성의 손짓에 자신의 마성이 호응함으로 그녀의 뒤를 밟았던 것이다.

결국 긴폐의 미녀미행은 그만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뒤를 밟은 마성의 여자들이 뿔뿔히 뜯은 마기에 그의 마성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티브로서의 마계가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는 또 하나의 소설은 『민들레』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布石」에도 못 미치는 未完이기 때문에 그 마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다. 다만 「魔界」가 미완의 『민들레』의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완성되었을 경우의 작품세계를 그 일부일지라도 예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들레』의 세계는 인체결지증이라는 奇病에 걸린 이나코가 미치광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젊은 여자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전하는 일기예보를 즐겨 듣는 니시아마 노인과 어떻게든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노인이 듣는 것은 일기예보의 내용이 아니라 젊은 여자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그가, 목소리가 아름다운 이나코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나코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노인을 매료시킬 것이고, 그리함에도 따라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두 사람은 육체적 향연에 빠져 들 것이라는 예견을 가능케 한다. 두 사람 모두 마성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가와바타의 소설에는 마계라고 하는 모티브가 다양하게 쓰여, 작품에 문학적 향기를 짙게 해 줌과 동시에, 머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읽어야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신감각적 수법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하겠다.

## 【參考文獻】

- 今村潤子(1990·5)『『千羽鶴』論』(羽鳥徹哉『川端康成—日本の美學—』有精堂, p.166> 所收)
- 岩田光子(1958·5)『川端文學の諸相—近代の妖艶—』, 櫻楓社 p.254
- 川端文學研究會著(1974·3)『川端康成の人間と藝術』 p.326
- 長谷川泉(1984·5)『川端文學の機構』, 教育出版センター p.236
- 兵藤正之助(1988·4)『川端康成論』, 春秋社 p.375
- Valdo H.Viglielmo(1978·5)『『みづうみ』論—なんとみにくい足であることか—』(武田勝彦·高橋新太編『川端康成—現代の美意識—』<明治書院、p.126、131> 所收)
- Vitaliy Tolstoy(1999·11)『『みづうみ』論』『世界の中の川端文學』, おうふう p.413

## 要 旨

川端康成の小説は象徴的な表現のため難解であると言えるが、この象徴的な表現の多くの部分は彼のみの 독특한モチーフを通じて書かれている。が、彼のよく使うモチーフのなかには「魔界」と言うものがある。

モチーフとしての魔界が本格的に使われている小説のなかに『千羽鶴』があるが、この作品の世界は、登場人物がこの胸にある掌の大きさの斑点から出てくる魔氣が他の登場人物たちに祟ることで成し遂げられている。魔氣に祟られた人々は魔性の人になって近親相姦の破倫を繰り返す。この作品の世界にはもう一つのモチーフとして形代というものが使われているが、ここでの近親相姦はこの形代のモチーフも機能して美しさにまで昇華させられる。

モチーフとしての魔界が使われた川端の小説を論じる時見逃してはならない作品として『みづうみ』がある。主人公の銀平は美貌の女人にあえば自分もわからないうちに尾行する習性があるが、これは彼の足と深い関連がある。美女のあとをつけるのは言うまでもなく足であるが、その足は醜いという特性があって、それは彼の内面の醜さと外貌の醜さも象徴している。ところで、彼の美女尾行は彼だけの一方的なものではなく、彼があとをつける魔性の女たちが振撒く魔氣に彼の魔性が敏感に反応することによって起こるということは作品の世界を解くことに非常に重要である。

『たんぼぼ』も魔界が重要なモチーフとして使われている作品である。この作品の世界には人体欠視症という奇病にかかった女主人公稲子が氣違い病院に入院することによって、若い女アナウンサーの美しい聲が伝える天気予報をよく聞いている西山老人となんらの関係が形成されるだろうということが予感される。老人が聞いているのは天気予報の内容ではなく若い女アナウンサーの美しい聲であるが、彼が聲の美しい稲子に会う時どういう反応を見せるかは疑問であるが、知りたくても知るべきがない。

ところが、稲子の美しい聲は老人を魅了させ、それによってなんらかの過程を経て二人は肉体的な過ちに落ちるだろうと言う予感も可能なものにする。二人とも魔性の人だからである。

以上考察してみたところ川端の小説には魔界というモチーフが多く使われ、作品に文學的香りを濃くあたえてくれるとともに、頭ではなく感覚で讀まなければその眞髓を味わえない新感覺的な手法に新しい機運を吹き込んでくれていると言える。

キーワード：魔界、魔性、佛界、魔力、魔氣、形代

투 고 : 2004. 11. 30

1차 심사 : 2004. 12. 11

2차 심사 : 2005. 1. 4

住 所 : 대전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2-863-9448

e-mail : j-seok@cnu.ac.kr